

# 책시장의 '성화(聖化)'를 꿈꾸며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법학

교보문고같은 대형서점에 다녀오는 날이면 나는 어쩐지 백화점에 다녀온 날과 흡사한 기분이 든다. 도심 한복판으로 진입해야 하는 일에서부터, 그새 새로 쏟아져 나온形形色색의 엄청난 물량에 감탄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이며,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줄여서 골랐건만 어쩐지 과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며, 집에 돌아와서 느끼는 그 엄청난 피로감이며.

충동구매식으로 산 책은 결국 안 읽게 되더라는 어느 동료 교수의 말에 웃은 적이 있지만, 아닌게 아니라 충동구매의 심리까지도 활용하는 것이 이즈음 책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사실 구할 책의 제목이 정해져 있거나 관심가는 주제나 필진이 확고한 경우에는 구태여 그런 대형서점을 택해 피로감을 자초할 까닭이 없다. 가까운 서점에다 주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뭐랄까, '사상의 자유시장'을 탐방하고 싶다고 할까, 조건 없는 '대화의 광장'에 서고 싶다고 할까 하는, 어느 정도 열린 무방비의 마음으로 큰 책시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는 대개 그런 마음의 허를 찌르는 그 무엇이 있는 법이다.

주자(朱子)가 쓴 글에 '문자전(文字錢)'이라는 말이 나온다. 선비가 책을 발간하여 수입을 얻는 것을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한 방책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이다. 이익도 《성호사설》에서, 가난한 선비가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책을 박을 경우 성현도 이를 조출히 여겼던 바라고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소비사회에서 저 시대의 '문자전'을 되뇌는 것은 부절없다. 세계화라는 시대의 화두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더 큰 시장을 찾는 것이 자본의 생리이다. 사치와 낭비를 줄이자는 시민적 캠페인조차도 무슨무슨 세계화적 물자교류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즈음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니 자본의 생리가 '사상의 자유시장'과 만날 때라 하여 기적이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객을 찾아가는 책을 두고는, 그래도 책이기에 여느 상품과는 다르고 책 시장기에 여느 시장과는 다르리라는 말을 아직 감히 하고 싶어한다. 요컨대 책에 관한 한 시장의 '성화(聖化)'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성화'된 그 시장에서 예컨대 나는 현란한 기법으로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책표지보다는 환경친화적이기 위해 힘쓴 책표지, 또 그런 방향으로 고안된 활자크기, 여백 등을 만나기를 꿈꾼다.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런 꿈을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혹 문자의 전주(錢主)들이 한 번 이런 객기를 부려보면 어떨까. 몇십만, 몇백만 권의 부수를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 중의 어느 한 분이 "나는 이제부터는 환경친화적인 책표지를 원한다"고 선언한다면 어떨까. ❖

초점	2	새봄에 읽는 녹색 숲과 나무 이야기
화제의 저자	3	《숲으로 가는 길》 펴낸 이유미·서민환 부부
리뷰	4	뚜껑 열린 '생명 복제'의 판도라 상자 인간복제·유전자연구 관련서에 관심 쏠려
저자 초대	6	《법은 무죄인가》 펴낸 박흥규 교수
신간 읽기	7	박지향 지음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 김덕호
기획취재	8	'성숙을 넘어 도약의 길로' 출현 50주년 행사계획 다채... 내실 다지는 계기로
출판인 칼럼	9	'창 밖의 풍경' - 허창성
출판 시평	10	UFO 신드롬에 편승한 출판상업주의 - 김동광
출판 화제	11	독자를 혼란시키는 기상천외한 제목들
	12	책으로 꽃피우는 지역사랑
	13	문예지 창간으로 문학계에 봄기운 물씬
	14	CD롬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고전
쟁점 서평	15	"시장경제는 속죄양이 아니다" - 공병호 《시장경제와 그 적들》 서평에 대한 저자의 반론
이 책을 말한다	16	E. M 번즈 지음 《서양문명의 역사》를 읽고 - 이광주
출판 포커스	17	출판은 산업인가 - 이중환
나의 학문과 책읽기	18	마음의 대화에서 느낀 희열의 순간 - 이은봉
해외 도서전 참관기	20	열린 정신이 어우러진 문화잔치 - 박재환 제17회 파리도서전을 다녀와서
연재 기획	22	연인과 새벽을 노래한 옥중서간집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⑤
화제의 책	24	《베스트 셀러》《세계건축기행》·외
서평	26	송찬식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 유승주 방입천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 김동수
	27	울리히 벡 《위험사회》 - 박길성 최성 《북한정치사》《북한학개론》 - 최완규
	28	니스벳 외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 이종은 제이 홀맨 《의료윤리와 새로운 문제들》 - 임중식
	29	미치오 가쿠 《초공간》 - 김제완
이 책 그 사람	30	《신부와 벽들공》 펴낸 제정구씨 《과학이야기》 펴낸 곽영직씨
	31	《뽕냄새를 풍기는 거울》 펴낸 박형준씨 《어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 여행》 펴낸 오영수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⑦